

장성군 지역특산물 지정...6차산업 부흥 기대

〈감·복숭아·포도·민물장어〉

진원면·남면 개발제한구역 내 가공·판매·체험시설 설치 가능

장성군이 감·복숭아·포도·민물장어 등 4개 품목을 지역특산물로 지정해 지역 6차산업 부흥이 기대된다.

6차 산업은 '농·특산물생산→제조·가공→체험·관광'으로 이어지는 '농촌융복합산업'을 말한다. 장성군은 4개 품목 특산물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련 작물을 활용한 가공·판매·체험·실습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비육한 돼지 지대인 진원면과 남면 일대는 장성의 대표적인 과수인 감, 복숭아, 포도 주산지다.

하지만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1차 생산'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해당 지역 농업인들은 '고소

득 창출'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나선 장성군이 '지역특산물 지정'이라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지역특산물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공고한다.

지역특산물로 지정되면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농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가공·판매·체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지역특산물 지정 지역이 인근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곳이라 도시민을 겨냥한 6차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합평군, 내달 2일부터

합평군이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군민·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이며, 제안자격은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생활, 경제활동, 법령·제도(자치법규포함), 기타(신산업) 등 4개 분야이다.

접수된 제안은 적정성, 효과성 등 관련 평가표에 따른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9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우수 제안자 10명에게는 최우수 30만원(1명), 우수 20만원(2명), 장려 10만원(7명)의 시상 및 포상금이 지급된다.

/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 농·어촌 빈집 활용방안 마련 시급

전체 2만103가구의 12.7% 2550가구 달해...홍물스럽게 방치

농어촌지역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어 활용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말 장흥군 지역 내 빈집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만103가구 중 12.7%에 해당하는 2550가구에 달해 농어촌마을이 홍물스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홍물스런 빈집은 날로 늘어만 가는데도 정부나 일선 지자체는 빈집활용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도 차원의 정비방안은 전무하고 겨우 일선 지자체가 나서 '빈집정비사업' 일환

으로 연 평균 50여 가구를 선정해 철거비(가구당 150만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군 의회는 이런 심각성을 감안해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임대방식을 통해 LH임대주택단지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 농어촌 빈집은 사회문제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도시학생과 가족을 끌어들여 펼치고 있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이 빈집을 활용하는데 마중물 효과로 기대에 불만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영철 장흥군청 민원봉사과장은 "빈집 소유자 대부분은 객지에 거주하면서 부모요산을



홍물로 방치된 폐가.

보존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매각자제를 꺼려하고 있어 빈집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휴일에도 농기계 임대하세요"

3~11월 확대 운영

화순군이 농사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 11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한다.

평일에는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휴일에도 개방해 농기계 이용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게 된다.

화순군은 능주면과 동북면 등 2곳에서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66종 394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지난해 총 6782대를 임대했고 614회의 찾아가는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2020년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2067개 농가에 2억1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임대료 50% 감면 혜택은 올해 6월까지



화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가 농민에게 배송할 트랙터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연장시행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농작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철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적기 영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국내 최대 '대한민국 민화대전' 참가작 공모

5월부터 학생부·일반부...지난해 1880점 접수 '인기'

국내 최대 민화(民畵) 전문 국립박물관인 한국민화뮤지엄이 올해도 제8회 대한민국 민화대전 참가작품을 공모한다.

공모전은 전통 문화유산인 민화의 계승·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강진군 주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강진교육청 후원, 한국민화뮤지엄 주관의 전국 최대 규모 민화 공모전으로 학생부(초·중·고·대·대학부), 일반부로 나누어 개최된다.

지난해 제7회 행사 때에도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총 1880점(학생부)이 접수되면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일반부 공모전의 경우 전국의 현대민화 작가들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국과 해외에서까지 작품이 접수되면서 한국민화뮤지엄의

홍보 및 운영 저력과 민화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학생부 공모전은 초등부(저학년, 고학년)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심사가 이루어지며, 초등 부문은 4절지 또는 8절지, 중등 부문과 고등 부문은 4절지에 전통 및 창작민화를 출품할 수 있다.

또 일반부는 민화(전통 및 창작민화 포함)와 민화를 활용한 공예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모 접수는 학생부는 오는 5월 17~28일까지, 일반부는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참가신청은 한국민화뮤지엄 홈페이지(<http://minhwamuseum.com>) 공모전 접수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후 작품을 발송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 대구면 한국민화 뮤지엄.

나주시, 상반기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

캘리그래피·영어·글쓰기·필라테스 등 17개 강좌

나주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시민의 문화·여가생활 향유를 위해 '2022년 상반기 평생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평생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 어플(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과목은 '캘리그래피랑 놀자', '넌니찌와 생활 일본어',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글쓰기 산책', '동화구연지도사', '체형교정 홈트 필라테스', '완전 기초 중국어' 등 총 17개 강좌로 구성됐다.

신청은 나주시 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www.naju.go.kr/edu)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대면 수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대면 위주로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와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교육부가 주최한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에서 경력단절 여성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성과에 힘입어 올해의 평생학습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첨가료 0, 감미료 0, 착색료 0, 인공감미료 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